



9주차 화차에 올라탄 공작나비

강의 이소윤

미야베 미유키(1960-)

- 버블 경제가 정점에 달했던 1987년 데뷔 이후 '사회파 추리소설의 대모'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왕성한 창작 활동을 이어옴.
- 버블 붕괴와 장기 경기 침체를 배경으로 이를 통해 야기되는 각종 사회 문제를 다룬 다수의 작품들을 발표함.
- 사회파 미스터리 대표 3부작: 『화차』(1992.2-6), 『이유』(1996.9-1997.9), 『모범범』(1995.11-1999.10).
- 각각 '소비자 신용에 의한 개인파산', '무리한 내 집 마련', '광기에 의한 무차별 연쇄살인마와 마스크' 등 현대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음.



이미지 출처: 문학동네

1990년대 초 일본 거품 경제의 파괴

- 일본의 버블 경제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절,
“도쿄의 땅만으로 미국 전체의 국토를 살 수 있다!”
- 닛케이 평균주가는 1980년 7천 엔대에서 1989년 말 3만 팔천 엔대로 상승. 1990년 말까지 도쿄권에서 오사카권, 나고야권, 그리고 지방까지 지가 급상승.
- 거품경제가 붕괴되고 소비자신용의 비정상적인 팽창으로 다중채무자가 늘면서 개인파산이 잇따르던 1990년대 초.
-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탓에 현대인이 걸리는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던 때.



돌고도는 불수레

- 화차(火車): 생전에 악행을 저지른 망자를 태워 지옥으로 실어 나르는 불수레

“화차여, 오늘은 내 집 앞을 스쳐 지나, 또 어느 가여운 곳으로 가려 하느냐.”

돌고도는 불수레.

그것은 운명의 수레였는지도 모른다. 세키네 쇼코는 거기서 내리려했다. 그리고 한 번은 내렸다.
그러나 그녀로 변신한 여자가 그것도 모르고 또다시 그 수레를 불러 들였다.

- 무로마치 시대의 개인 시가집인 『슈교쿠슈』에 나오는 노래
- 지옥행의 불수레에 올라타 버린 가여운 운명에 동정→극중 두 여성의 비극적인 운명
- 불수레가 돌고 돌아 다음에는 누구를 찾아갈지 모른다는 섬뜩한 대목

① 신조 교코 ② 누군가: 거품경제 붕괴 후 사회 전체적인 문제 속에서 일어난 현상.

언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음.

두 여자는 악인인가?

- 소설은 이 두 사람을 악인으로 그리고 있지 않음.

세키네 쇼코

- 미조구치 변호사曰: 쇼코의 개인파산은 소비자신용의 비정상적인 팽창에서 비롯. 반드시 개인의 문제라고만은 할 수 없는 금융시장의 허상에 의한 것→개인보다 사회의 구조적 측면에서 기인.
- 일본은 1960년대 고도경제성장기에 신용판매나 소비자대출 같은 소비자신용이 성립. 1980년대 말에 일어난 거품현상.
- 무차별적인 과잉여신과 고금리,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 신용대출이 늘어남. 다중채무자가 늘어나면서 범죄를 양산하는 소비자신용의 산업구조 형성. 개인의 결함만으로 단죄할 수 없는 측면.

두 여자는 악인인가?

- 소설은 이 두 사람을 악인으로 그리고 있지 않음.

신조 교코

- 4년 전에 이혼한 교코의 전남편인 구라타 고지에게 교코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됨.
- 교코의 아버지는 지방 기업의 직원으로 월급도 적은데, 주택경기에 편승하여 주택대출을 받은 결과 많은 빚을 짐.
- 교코의 어머니는 빚쟁이에게 붙들려 매춘과 마약을 강요당하다 죽고,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김.
- 구라타 고지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를 추적해낸 빚쟁이가 집으로 들이닥쳐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서로의 안전을 위해 이혼.
- 두 인물의 고통은 삶을 망가뜨릴 정도의 가혹한 족쇄임.

돌고도는 불수레

- 쇼코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타고 있던 운명의 불수레에서 한 번은 내릴 수 있었음.
- 쇼코가 타고 있던 것이 지옥으로 가는 불수레인 줄도 모르고 교코는 다시 운명의 불수레를 불러들임.
- '화차'의 섬뜩함은 두 여자의 비극적인 운명이 연쇄되어 있는 바로 이 접점에서 일어나고 있음.
- 두 여자의 삶은 애초에 별개의 것이 아니었던 것.

당신들 두 사람은 같은 부류였다.

혼마의 뇌리에 스친 말은 그것이었다. 세키네 쇼코와 신조 교코.

당신들 둘은 같은 고통을 겪어진 인간이었다. 같은 족쇄에 묶여 있었다. 같은 것에 쫓기고 있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당신들은 서로를 잡아먹은 것이나 다름없다.

변영주 감독의 세번째 극장편 영화 <화차>(2012)

- 4편의 장편 다큐멘터리/3편의 장편 극영화.
- 작품을 통해 사회 비판적인 시선을 담음.
- <화차>는 원작보다 나은 영화라는 평가.
- 특히 김민희를 비롯한 배우들의 열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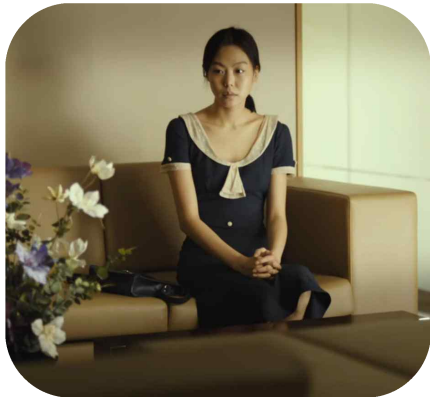
영화 <화차> 제작과정

화차
火車
제작과정

영화 <화차>와 카메라의 눈



영화 <화차>와 카메라의 눈



뱀 쇼코와 공작나비 경선

“뱀은 허물을 벗잖아요? 그거 실은 목숨 걸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런데도 허물을 벗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목숨 걸고 몇 번이고 죽어라 허물을 벗다보면 언젠가 다리가 나올 거라 믿기 때문이래요. 이번에는 꼭 나오겠지, 이번에는, 하면서...그런데도 뱀은 생각해요. 다리가 있는 게 좋다. 다리가 있는 게 행복하다고. 거기까지가 우리 남편의 학설. 그리고 여기부터는 내 학설인데, 이 세상에는 다리를 원하지만 허물벗기에 지쳐버렸거나 게으름뱅이이거나 벗는 방법을 모르는 뱀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뱀들에게 다리가 있는 것처럼 비춰주는 거울을 파는 뱀도 있다는 말씀. 그리고 뱀들은 빛을 내서라도 그 거울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뱀 쇼코와 공작나비 경선

“공작나비 날개에는 눈알 같은 무늬가 있는데 위험이 닥치면 날개를 짹 펴서 그 무늬를 훨씬 크게 보이려고 한대. 그 모습을 더 공포스럽게 보여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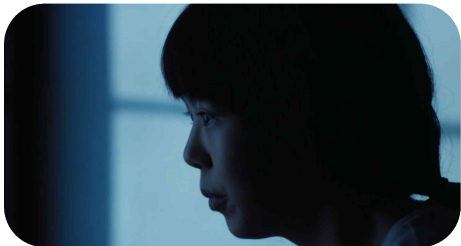


고독자로서의 신조 교코

또한 혼마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다. 신조 교코는 고독했기 때문에, 외톨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칭하고 가로챌 수 있지 않았을까. 쫓기고 도망치는 그녀의 처지를 이해하고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려는 남자가 단 한사람이라도 곁에 있었다면 그녀는 ‘신조 교코’라는 자기 이름을 버리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협력자의 힘을 빌려 온전히 신조 교코인 채로 도망치는 길을 고민했을 것이다. 이름이란 타인에게 불리고 인정받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다. 신조 교코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녀와 떨어질 수 없는 인간이 주위에 존재했다면, 그녀는 결코 핑크 난 타이어를 버리듯 간단하게 ‘신조 교코’라는 이름을 내동댕이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독자로서의 경선

“저를 가엾게 여기신다면 제발 좀 죽여주세요. 제발 우리 아버지를 죽여주세요. 저를 가엾게 여기신다면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죽여주세요. 제 눈 앞에 우리 아버지 시체를 보여주세요.”



고독자로서의 경선



고독자로서의 경선

문호 : 잘 지냈어? 아니지? 니가 그런 거 아니지? 그럴 리 없잖아, 니가.

경선 : 나야. 내가 그랬어.

문호 : 너 대체 누구야? 니가 사람이야? 너 뭐야?

경선 : 나 사람 아니야. 나 쓰레기야. 그때 나한테 아무도 없었어. 내가 다 한 거야. 나는 강선영이 아니야. 나는......

문호 : 하지마. 너 아무 얘기도 하지마. 아무 얘기도 하지마.(안는다)

경선 :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문호씨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좀 가게 해 주세요. 제발.

문호 : 내가 너 얼마나 걱정했는데. 내가 너 얼마나 사랑..... 너 나 사랑은 했니?

경선 : (고개 젓는다)

문호 : 가. 더 이상 찾지 않을 테니까. 가. 근데 그냥 너로 살아. 절대 붙잡히지 마.

경선: 나쁜 새끼. 호로 새끼.

질문거리들

- 소설 속 명구절과 영화 속 명장면을 비교해보자.
- 소설 속 혼마, 가즈야와 영화 속 김종근, 장문호는 캐릭터 상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가? 그러한 캐릭터상의 차이가 쇼코와 교코, 선영과 경선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 소설에서 교코의 정체는 끝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효과를 지닐까? 반면 영화에서 선영의 정체는 지극히 희미하다. 그것이 어떤 효과를 지닐까?

참고문헌

- 강지연, 「미야베 미유키의 『화차』론-‘불공평한 운명’이 초래한 ‘고독’의 치유 과정-」, 『일본문화학보』78, 한국일본문화학회, 2018.
- 권희주·김계자, 「두 여자의 비극: 일본의 사회파추리소설 『화차』」, 『일본연구』30,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18.
- 김경애, 「트랜스미디어 현상과 문학적 변주-소설 『화차』의 영화 <화차> 각색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69,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 안정윤·함충범, 「변영주 감독 영화 속 사회 비판적 메시지에 관한 고찰」, 『Journal of Memory & Vision』40,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9.
- 한정선, 「미야베 미유키, 우리 이웃의 ‘일상’을 추적하다」, 『문학동네』21, 문학동네, 2014.